

# 장병가요 '나를 넘는다' 상호연대 상륙

## 장병들에게 폭발적 호응 ... 신나는 병영문화 조성

“거친 흙먼지 마시며 붉은 태양에 온몸이 타도 달려왔다. 견뎌왔다. 단 하나 소망으로...”

새로운 장병가요인 '나를 넘는다'가 영내에 울려 퍼지자 장병들이 다 같이 입을 모아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빠르고 경쾌한 댄스발라드풍의 이 곡은 기존에 딱딱하고 정형적이었던 군가의 틀을 벗어나 신세대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춰 제작된 곡으로 병영 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육군에서 '인식과 발상 전환'의 일환으로 기존의 군가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새로운 형식으로 만들어 2012년 1월20일 제작 발표된 장병가요 '나를 넘는다'는 히트곡제조기로 불리는 유명작곡가 김형석씨가 작곡하고 인기 가수출신인 박효신 상병이 불렀다.

'나를 넘는다'의 노랫말은 서

로 의지하며 어려움을 이겨낸다 는 내용이 담겨있어 동료들 간에 용기를 주기 위해 불러줄 수 있고, 일반인들은 군 생활을 회고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점에서 장병 응원가의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음악스타일은 다소 빠른 댄스풍의 경쾌한 리듬과 후렴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에어로빅을 곁들인 체력단련용과 단체행사때 응원가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일반 가요처럼 리듬이 쉽고 반복성이 있어 2~3번만 들어도 그 리듬이 흥얼거려질 만큼 대중성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장병가요의 발표에 맞춰 상호연대는 지난달 28일 부대에서 가장 경연대회를 열고 장병가요 확산에 나서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장병가요 가장활성화는 1단계 장병가요 확산, 2단계 장병가요

북, 3단계 장병가요 생활화 총 3 단계로 진행하고 있다.

1단계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 저녁 점호시간 영내방송을 통해 군 생활의 보람과 가치를 내면화할 수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또 부대 지휘관들도 매일 아침 상황회의 시 장병가요를 제창하고 개인 스마트폰에 음원을 탑재하여 어디서나 장병가요를 익히고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2단계에서는 주간정신교육시간을 활용하여 노래와 안무실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경연대회 우승팀을 활용해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순회교육을 통해 전방철책을 지키고 있는 전방부대원들에게 경계작전의 긴장감과 부담감을 덜어 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3단계에서는 부대이동, 식사, 체력단련 시 장병가요 제창을 통



육군 22사단 상호연대는 지난달 28일 부대에서 장병가요 가장 경연대회를 열고 장병가요 확산에 나섰다.

해서 긍정적인 가사와 음율이 생활전반에 자리 잡도록 하고 있다.

본부중대 차다니엘 상병은 “모두가 좋아하는 작곡가와 가수가 제작에 참여해서 그런지 절로 흥얼거리게 되고 안무도 스트레칭이 가미되어 있어 안무를 따라하면 건강해지는 것 같고 기분도 상쾌해진다”고 예찬론을 폈다.

김정우 연대장은 “군 생활에 대한 의지와 전우애를 담은 노랫말과 대중에게 어필하는 멜로디가 돋보이는 장병가요를 적극 확산시킴으로써 군 생활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밝고 활기찬 병영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광연 기자

## 힘 들어도 열심히 사는 이웃들 '방송 탄다'

자산리 간종민 가정 KBS '동행' ... 거진10리 이국자 가정 MBC '나누면 행복' 출연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삶에 대한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진지역 이웃들이 전국 방송에 소개돼 후원의 손길이 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성군노인복지회관에 따르면 최근 KBS 한국방송과 MBC 문화방송으로부터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산리 간종민

씨 가정과 거진10리 이국자씨 가정을 연결해 촬영을 마쳤다. 간종민씨 가정은 매주 목요일 밤 11시40분에 방송되는 KBS 현장르보 '동행' 촬영을 마쳤으

며, 오는 8일 방송된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면서 가정을 돕는 후원금을 모금하는 프로그램이다.

이국자씨 가정은 매주 수요일 밤 12시35분에 방송되는 MBC '자원봉사 희망 프로젝트-나누면 행복' 촬영을 마쳤으며, 오는 7일 방송된다. 재방송은 14일 낮 12시. 걸그룹과 개그우먼 박슬기와 함께 가정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면서 후원금을 모으는 프로그램이다.

최광호 기자

고성사랑 실천은 고성신문 주식 갖기부터

## 고성신문 주주 대모집

창간 2년차를 맞아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고성신문과 함께할 주주를 모십니다. 고성신문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 ○ 고성신문 주주가 되는 방법

- 고성신문 주식을 구입하면 누구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이며, 1주의 가격은 1만원입니다. 주주 참여는 10주(10만원)부터 가능합니다.
- 주식 구입 의사를 밝히고 금액을 입금하면 주권을 전달해드립니다. 주권은 1만원권, 10만원권, 100만원권 3가지 종류로 발행됩니다.

### ○ 고성신문 주주가 되면

- 고성신문 주주가 되시면 고성신문 경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 등에 참석해 주주로서 발언할 수 있으며, 이사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매년 연말 결산을 통해 이익이 발생할 경우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고성신문이 주최하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 등에 초대권을 우선 보내드립니다.

### ○ 고성신문 이사가 되면

- 고성신문 이사는 주주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사 선거를 통해 선임됩니다.
- 이사들은 매월 정기이사회를 통해 회사 경영 전반을 살필 수 있으며, 경영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경영에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 이사는 임기 3년의 대표이사, 감사, 전무이사 등의 임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고성신문 ☎033-681-1667

